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공공성의 관점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복합문화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al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 Focusing on Complex Cultural Facilities -

○이 지 호*

이 현 호**

Lee, Ji-Ho

Lee, Hyun-Ho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reconfig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contemporary urban spaces. The prevailing urban paradigm—characterized by the functional segregation of land uses—has produced public spaces that exist physically but remain socially ineffective. In response, landscape architecture emerges as a critical design strategy to overcome spatial fragmentation, enabling architecture to transcend isolated, objectified forms and be reintegrated into both urban and ecological contexts. By employing landscape as an intermediary layer, design can dissolve rigid boundaries, generate spatial continuity, and foster more inclusive and connected urban environments. Ultimately, this study underscores how a landscape architectural approach,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can redefine the public realm and expand the experiential and civic potential of urban space.

키워드 : 랜드스케이프 건축, 복합문화시설, 공공성, 경계성

Keywords : Landscape Architecture, Complex Cultural Facilities, Publicness, Boundary

공성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둔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도시 공간은 기능적 분리와 수직적 밀집으로 인해 일상적 동선이 단절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주거, 업무, 상업 등 각 기능이 분리된 도시는 유기적 연계를 상실하며, 물리적 규모에 비해 실질적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형식적 공공 공간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도시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공공성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주변 환경 및 도시 맥락과 유기적으로 관계 맺는 존재로 인식하고,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는 단순히 조경이나 정원 개념을 넘어, 건축물을 독립된 오브제로 보는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기능적 연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가능케 하는 도시 전략으로 작동한다. 특히, 복합문화시설은 본질적으로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그 성공 여부는 내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 구성 및 도시와의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도시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주변 환경 및 도시 맥락과 유기적으로 관계 맺는 존재로서 공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기존의 랜드스케이프 건축 관련 연구들은 주로 건축물의 형태, 프로그램 구성 등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확장된 특성 분석이 도시 공간의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적 특성이 나타나며 치환되었던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복합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적 특성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들이 해당 시설의 공공성 구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이해

2.1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

1994년 런던의 건축가협회(AA)에서 개최한 “The Recovery of Landscape” 심포지엄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실천 회복과 재정의의 목표를 삼은 선언적 시도였다. 이 심포지엄은 과거의 경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제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¹⁾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라 빌레트 공원 계획에 Rem Koolhaas, Bernard Tschumi 등이 참가하며 대규모 계획안을 필두로 개념이 치환되었다.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대지와 도시 맥락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7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²⁾

* 홍익대 대학원 석사과정

** 홍익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chiasmus@hongik.ac.kr)

1) James Corner, Recovering Landscape, p.x (Preface).

전시회를 바탕으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을 분석한다. 전시회에서 제시된 개념을 토대로, 현대 랜드스케이프의 건축의 개념을 침투, 랜드마크, 경계, 내부의 풍경이라는 네 가지 관계적 특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각 특성은 (표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축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건축이 도시, 자연,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매개체 역할임을 (표2)를 통해 보여준다. 물리적 경계를 넘어 비물리적 사고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특성이 강하게 발현됨을 보여준다.

표1.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 유형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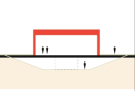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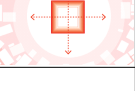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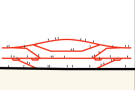
분류	특성 분석			특성
	작품명	다이어그램	종합분석	
침투	Brazilian Sculpture Museum (1995)		판을 통해 건축적 매스를 지하화, 반면 보이드를 입면화해 비결정적 프로그램 조성가능한 마당 생성.	전이성
	Berlin Velodrome and Swimming Hall (1999)		광활한 대지에서 기존의 지역적 형태를 방해하지 않으며 입면적 비우기, 부채하는 볼륨을 통해 침투.	전이성
	Cinema Bleu (1991)		외부의 다른 시각의 영상을 현실의 장소에 오버레이하여 시간의 축의 병치.	병치
랜드마크	Maison De Beistegui (1930)		초현실적 도시와 건축물 지형의 규모를 연장. 도시 전체의 풍경을 건축의 요소화.	사고 확장
	La Grande Arche (2005)		광활한 대지의 새로운 스케일을 도입. 개선문을 참조점으로 도시환경 생성.	도시의 상징
	Centre de Cultura Contemporania de Barcelona (1994)		기존의 수평적 시설에 새로운 수직적 매스를 통해 도시 조직과의 명확한 구분, 전방대로서 스케일의 변화.	도시의 상징
	Bibliotheque Nationale (1995)		네 코너의 조정을 통해 도시의 스케일 체감, 건물은 상징적 장소의 경계를 생성하며 광장조성.	연속성
경계	Yokohama Terminal (1995)		지형화된 판의 바닥을 활용하여 레이어를 중첩한다. 시민과 이용자의 복잡한 동선을 완충한다.	중재
	Multimedia Studio (1997)		인식의 경계를 형성하여 넓은 대지와 건축의 일체화를 유도한다. 반면 공간적으로는 분리 시도.	경계 구축
내부의 풍경	Fondation Cartier (1995)		중첩된 입면의 거대한 유리장벽을 통해 고체와 비물질적 사이의 마찰 유도, 조경을 내부의 개념으로 분산하여 기존의 위계를 탈피.	통합화
	Sendai Mediatheque (2000)		전자의 흐름을 모티브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연의 원초적 공간을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중성을 자기 조직화 유도.	통합화

표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 유형별 특성

분류	관계 유형별 특성	
침투	범주 간 전이 이분법적 관계 약화.	건축물·오픈스페이스, 도시환경·자연은 도시 건축·영토 간 물리적 전이. 실제·시뮬레이션의 비물리적 전이
랜드마크	영토적 스케일 지향 공공생활의 중심	물리적 스케일 의미를 벗어나 사고의 범위로 확장. 기존의 조직에 고려하지 않음 '무'에서 시작하여 질서 개척.
경계	도시·건축·영토 범주 사이의 경계	침투보다 물리적 성향이 강함. 다른 지형사이 경계를 조절.
내부의 풍경	내부에서의 사고 전개	물리적 성향이 강함. 건물이 수용하는 프로그램 규모와 성격이 현대사회의 복잡성 대체.

3. 복합문화시설의 공공성

3.1 복합문화시설의 공공성

복합문화시설은 단순한 기능적 건축물을 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이를 통해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시설은 시민의 접근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문화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규모의 특성상 건설됨과 동시에 상징적 특성을 가지며 건축 양식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주변 녹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의 특성도 가진다. 잠재적 이용자도 수용하는 특성을 보인 것이다.

공공성 평가를 목적으로 선행 연구된 문화시설의 사례 (표3)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빈도와 맥락적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6가지 특성을 평가지표(표4)의 기준으로 확보하였다.

표3. 복합문화시설의 공공성 선행 참고문헌 분석

저자	논문명	주요특성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2004).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체류성, 쾌적성
조성준	현대 박물관건축에 나타난 '건축의 공공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2007).	개방성, 상징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투명성
이효창, 박정아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개방성, 교류성, 영역성, 연계성, 인지성, 위계성, 접근성, 전이성, 쾌적성, 편의성
송은아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에 나타난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2012).	연계성, 연속성, 영역성, 전이성, 접근성, 체류성, 쾌적성
김소은	복합문화시설 외부공간 설계요소의 공공성분석, (2018).	개방성, 다양성, 심미성, 안전성 접근성, 정체성, 쾌적성, 편의성
종합 결과		
횟수	주요특성	
5번	접근성, 쾌적성	
4번	개방성	
3번	연계성	
2번	체류성, 영역성, 전이성, 편의성	
1번	상징성, 투명성, 교류성, 연계성, 인지성, 위계성, 연속성, 다양성, 심미성, 안전성, 정체성	

2) Eduard Bru,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p.8-19.

표4. 복합문화시설의 공공성 평가 기준 및 정의

특성	특성별 정의
접근성	공공 공간에 대한 물리적 진입 용이성을 의미하며, 누구나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환경적으로 지원되는 특성이다.
쾌적성	이용자가 공간 내에서 신체적·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품질로서, 자연 요소, 조형성, 청결성 등이 포함된다.
연계성	공간 간의 물리적, 시각적, 기능적 연결성으로, 건물의 내부·외부, 또는 인접한 다른 건물이나 지역과 유기적으로 이어져 동선 흐름을 활성화, 위계를 명확히 함.
개방성	공간의 심리적 및 시각적 투명성과 외부로 열린 정도를 의미하며, 내·외부 공간의 연계와 개방된 시야를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다.
전이성	영역 간 전이 구간에서 서로 다른 공간 성격(내·외부, 공공·사적 등)을 자연스럽게 완충해 주는 특성으로, 심리적 이질감 해소 및 공간 흐름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편의성	이용자가 공간을 목적에 맞게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동 편의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핵심이다.

4. 사례 분석

4.1 사례선정 및 범위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복합문화시설 공간계획에 있어 공공성이 구현되는 관계를 파악하며, 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전시회에서 다루어진 건축물 중 복합문화시설이 아닌 사례를 제외했으며, 해당 건축물들이 지닌 랜드스케이프적 특성과 동일한 특징을 갖는 1990년대 이후 완공된 복합문화시설들로 대체하며 분석 대상을 구상하여 (표5)와 같이 11개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표5. 사례 분석 대상 건축물 목록

no	년도	프로젝트 명	건축가
①	1995	Brazilian Sculpture Museum	Mendes de Rocha
②	1999	Berlin Velodrome and Swimming Hall	Dominique Perrault
③	2000	Hannover Expo Dutch Pavilion	MVRDV
④	2015	China Academy of Art's Folk Art Museum	Kengo Kuma
⑤	2005	Paul Klee Museum	Renzo Piano
⑥	1994	Centre de Cultura Contemporania de Barcelona	Albert Viaplana
⑦	1995	Bibliothèque Nationale	Dominique Perrault
⑧	2014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Woo Kyu-sung
⑨	2004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NA
⑩	1995	Fondation Cartier	Jean Nouvel
⑪	2000	Sendai Mediatheque	Toyo Ito

4.2 사례분석 종합

분석 내용 (표6)을 정리하면, 복합문화시설 건축물이 대지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이 연계성과 전이성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네 가지 특성 중 침투의 특성은 지하화하여 개방성·쾌적성을 극대화하지만, 이동약자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랜드마크 특성은 독자적 형태로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을 저해함을 확인했다. 경계 특성은 도시, 대지, 인간, 물리적

·심리적 맥락을 중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이와 연계성을 통해 공공성 평가지표 전반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내부의 풍경 특성은 자연을 내부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비물리적 유연성과 연속성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표7. 랜드스케이프 건축 관계 유형에 따른 공공성 평가

분류		접근성	쾌적성	연계성	개방성	전이성	편의성	총평
유형	no							
침투	①	●	●	●	●	●	○	●
	②	○	●	●	●	●	○	
	③	●	●	●	●	●	○	
랜드마크	④	○	●	●	○	●	●	●
	⑤	○	●	●	○	●	●	
	⑥	○	○	●	●	○	●	
	⑦	●	○	○	○	○	○	
경계	⑧	●	○	○	●	○	●	●
	⑨	●	●	●	●	●	●	
내부의 풍경	⑩	○	●	●	○	●	○	●
	⑪	●	○	●	●	●	○	
총평		○	○	●	○	●	○	×

연관성 기호 : ●높음, ○보통, ○미약, ○낮음

5.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랜드스케이프 건축 사례들을 공공성 평가 지표에 따라 분석하며,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적 특성과 공공성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현대 프로그램의 불확정성을 이분법적 경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특성을 통해 공공성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성과 연계성은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성이 단일한 물리적 형태나 기능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건축물이 도시 전체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때 발현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James Corner, Recovering Landscap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2. Eduard Bru,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Actar, 1899.
3. 최기원, 심우갑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2 (2004): 311-314.
4. 조성춘, 조경수 “현대 박물관건축에 나타난 ‘건축의 공공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1 (2007): 121-124.
5. 이효창, 박정아, 하미경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6 (2008): 181-191.
6. 송은아, 김문덕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에 나타난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5 (2012): 317-327.
7. 김소은, 이재선 “복합문화시설 외부공간 설계요소의 공공성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2 (2018): 5-20.

표6. 랜스케이프 건축의 사례에서 복합문화시설 공공성 분석

유형	no	배치도	공공성 종합 분석					
			접근성	쾌적성	연계성	개방성	편의성	
침투	①		·2개의 주출입구 및 1개의 부출입구. ·대중교통 접근성은 우수, 자차 접근성은 미흡. ·평지에서 하강 진입.	·지하 공간으로 자연 채광 및 조경 유입.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20% 미만.	·상·중·하 배치로 내부 공간 간 위계의 연계성. ·은폐성 매스로 지상의 대지의 맥락을 유지하여 공공성을 확보.	·지상부 구조물 최소화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야외 전시 공간을 통한 시민 개방성 확보.	·불륨의 전이를 통한 지상의 공공화로 도시·건물·대지 경계를 유기적으로 전환.	·슬로프 동선을 통해 이동 편의성 증대 (엘리베이터 미설치). ·옥외 가로시설물 미비.
	②		·2개의 계단, 1개의 긴 램프를 통해 평지에서 상향으로 진입하는 접근성 불편함.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	·은폐성 매스로 지상의 쾌적성. ·천장을 통한 풍부한 자연 채광 및 쾌적한 환경.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55% 미만.	·건물 지하화를 통한 주변 도시·대지와 맥락 유지. ·원형-벨로드롬, 사각-수영장의 매스로 위계성.	·지상부 공원 24시간 개방. ·은폐성 매스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개방성 확보.	·은폐성 매스는 도시·건물·대지를 하나로 융합한다. ·관람석을 가기 위한 둘러 쌓인 서비스 공간을 거쳐 진입.	·엘리베이터가 한쪽의 면에 몰려있어 제한적이다. ·옥외 가로시설물 양호.
	③		·1층 다리 및 대지를 통한 자연스러운 진입. ·옥외 계단을 활용한 선택적 층 진입. ·대중교통 양호.	·각 층에 바람, 물 등 자연 요소를 순환시켜 주제 강조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60% 로 쾌적성 확보.	·다층화된 생태계 레이아웃 구축으로 자연의 수직화. ·3층에서 시각적 장치를 통해 4층의 나무층의 맥락을 연계.	·각 층은 외벽이 없는 구조로 시각적 개방성. ·2층-수평적, 3층-대각선 방향으로 시각적 개방.	·자연적 맥락을 통한 다양한 영역간 단절을 전이 및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	·1층의 다리 진입시 이동약자 불편 초래. ·기계적 수직동선 적절. ·옥외 가로시설물 미비.
랜드마크	④		·경사 지형으로 인해 접근성 매우 낮음. ·대중교통 접근성 매우 낮음.	·마름모꼴 평면을 중정으로 활용. ·채광을 위한 수직 조정 시설 확보. ·와이어와 기와 외벽을 통한 자연 채광 조절.	·고전 중국 기와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기존의 건물들과의 연계. ·경사 지형의 유기적 활용으로 연속성 유지.	·다단 형식의 내부 대지를 통한 교차적 시각 개방성 확보.	·다단 형식의 내부부를 따라 층의 계층을 탈피한다. ·낮은 박공지붕으로 건물·대지의 자연적 완충.	·수직 동선을 대체 할 기계적 수단 부재. ·슬로프 동선을 통해 최상·하단 연속적 동선.
	⑤		·주차 시설 양호. ·고속도로 인접 특성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컨틸레버 구조를 통한 접근성 유도.	·지하층-커튼월, 전시장-천장을 통한 채광 유입.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80% 구성.	·주름 형태를 통한 기존 대지 산맥 동선과의 일치화. ·메인 복도를 통한 공간의 위계를 정리하며, 유기적인 동선.	·동선과 일치하는 얇은 갈빗대 구조 파사드로 심리적 개방감 확보. ·주동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시선으로 개방감 조성.	·메인 복도를 통한 전시장과 내·외부 소음·빛 중재. ·갈빗대 구조를 활용한 장대한 면적 치환.	·각 동 및 중앙에서 지하 진입 코어 존재. ·옥외 가로시설물 양호.
	⑥		·스페인 전통 건축 특성상 차량 진입 미흡. ·대중교통 양호. ·평지 진입.	·전면 커튼월을 활용한 자연 채광. ·파티오를 통해 독립 공원을 구성.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10% 미만.	·반사 외피를 통한 외부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 ·기존 건물들과 차별화된 독자적 스케일 및 특색성으로 분절.	·사선 매스를 통한 심리적 입구 효과. ·지하와 연결된 보이드 코어로 수직적 개방감 확보, 전면부 커튼월 활용.	·보이드형 코어를 통한 전망대 이자 프로그램 간 완충. ·신 재료로 하여금 기존 건물과의 역사적 맥락 전이를 시도.	·안내데스크 높이를 낮춰 편의성 증대. ·다양한 기계적 수직 동선 겸비. ·슬로프 활용.
	⑦		·4개 면이 도로와 접함. ·다면의 횡단보도를 통한 접근성 확보. ·주차 및 대중교통 이용 용이. ·평지 진입.	·목재 루버를 활용한 채광 조절. ·지하 중정 배치로 지상층에서도 조정 감상 가능. ·선근 구조 활용.	·센강양쪽의 베르시 공원과 도서관 광장 연결. ·중정을 따라 장방향-열람실 및 단방향-서비스실 배치.	·코어를 제외한 전면 커튼월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모서리 매스를 통한 다방향 개방감.	·외부 소음을 보이드로 완충. ·자연의 내부화를 통한 건축·도시 관계 전이.	·18대의 에스컬레이터와 8개의 엘리베이터로 진입 가능. ·옥외 가로시설물 매우 양호.
	⑧		·주차 시설 양호.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 ·대지의 육각형 형태로 높은 인접성. ·대중교통 용이.	·지형화된 지붕 '빛의 정원' 24시간 개방. ·채광정을 통한 자연 환기 및 채광 유입. ·선근 구조 활용.	·문화정보원의 로프트 공간을 통한 시각 및 레벨 연계성 확보. ·지역 역사적 광장 및 건물 존치.	·지하 폐쇄성 해소를 위한 웅벽을 따라 중정 배치, 외부 도시와의 시각 차단 동시 실현.	·로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중재 기능. ·과거 저항의 상징에서 현재 문화 교류장으로의 사회적 전이.	·넓은 복도 폭 활용. ·도로 및 도로로부터 문턱 없이 접근 가능. ·다양한 기계적 수직 동선 겸비.
경계	⑨		·링 형태를 따라 내부 진입로 5개. ·4방향성 탈피. ·차량 보행자의 보차 분리. ·평지 진입.	·수평적으로 넓은 내부에 4방향으로 4개의 중정배치.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50% 미만.	·외벽 커튼월을 통한 정원의 내부 시각적 연결. ·내부로 진입할수록 상업 전시실 배치.	·군도형 박스 구성으로 비계층적, 고정성 동선 탈피, 시각적 개방감.	·각 내·외부 매스 주변으로 띠 형태 복도 형성, 외부와 내부 맥락의 완충을 통한 영역 간 전이.	·주요 전시 시설 지상 배치. ·군도형 박스 복도의 폭은 4-12M. ·다양한 기계적 수직 동선 겸비.
	⑩		·접도면이 협소하여 접근성 낮음. ·지하(기계), 지상 주차장 겸비.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평지 진입.	·슬라이딩 윙을 통한 홀·공원 연장. ·전면 유리를 통한 용이한 자연 채광.	·공원 연계를 위한 최소한의 강철 프레임. ·유리와 강철 프레임을 통한 문화적 역사 맥락 유지.	·유리와 강철 프레임 조합으로 4방향 개방성 확보. ·미술관 사적 공간으로 공원 이용 시간 제한.	·전면에 투영된 외관과 같은 유리벽은 나무와 내부의 경계 완화 및 자연스러운 전이 유도.	·이용자 및 근로자 동선을 층으로 구분. ·중앙 코어를 활용한 회선식 동선으로 동선 단거리화.
내부의 풍경	⑪		·대중교통, 지하 주차장을 모두 갖춰 접근성 우수. ·차량 보행자의 보차 분리. ·평지 진입.	·더블 스킨 구조로 온도 조절 효과적. ·대지 내 조정 면적 약 10% 미만. ·고정된 벽 보다 열린 공간 구조	·현대의 기계적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단독적 코어로 분절 시키는 것이 아닌 건물과의 일체화 시도.	·튜브 기둥과 보이드를 통해 수평·수직·사선적 개방감 확보. ·1층은 개방된 광장의 연장으로 개방성 확보.	·판의 개념에서 보이드와 튜브기둥의 조합으로 각 층을 일체화 한다.	·상·하단의 튜브 기둥에 기계적 수직 동선을 배치 해 내부에서의 단거리 동선 유도. ·옥외 가로시설물 양호.